

논문 12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

신 희 경*·김 우 영**

I. 서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고도성장 속에서 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석유파동 때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으며 고용은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웠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을 급속히 증가시켰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자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성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루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변해왔다. 제조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방식이 자동화되고 사무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수요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GDP가 3.1%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조짐도 보였다. 또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함에 따라 숙련 불일치 등 노동력의 수급에 있어서도 차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로 진입하면서 청년층(15-29세)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청년실업률은 7.8%로 전체실업률 3.2%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자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에 청년실업자 중 대졸이상의 비중이 30%였던 것이 2004년에는 37%로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높은 교육열이 높은 수준의 고학력 노동자를 배출하여 성장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고학력 노동자가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 99%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도 2003년 기준으로 80%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학력간 수급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학력 실업자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고등학교시절에 올바른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간의 학력의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조건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교와 가정의 교육적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포함한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특성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의 다양한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와 직접,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의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단계적 과제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획일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자신과 직업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또한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부모의 희망과 요구대로, 또는 사회적인 인정과 혜택만을 기준으로 그리고 남들이 선택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식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5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만일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와 확신 그리고 내적동기가 결여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 진학과 취업으로 이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진로와 관계된 정체감을 가지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은 노동시장에서 학력간 수급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실업을 증가시키며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과연 진로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학력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효율적인 진로 및 진학지도의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대로 된 직업교육과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는 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과정과 특성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지,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지, 또 그 과정에서 개인, 가정,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제공하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심층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며, 고등학생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진로선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또한, 이를 근

거로 학교에서 올바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진로결정의 개념 및 관련변인에 관해 관심을 갖는다. 진로결정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구분하고 두 집단의 특성, 특히 진로미결정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Walsh and Osipow(1988)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그리고 경험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진로미결정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Crites(1981) 역시 정보와 체험의 부족을 진로미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인지적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1977)은 진로미결정이 낮은 자아효능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Tayler and Betz(1983)은 자신이 스스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진로결정을 용이하게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진로미결정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관련변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Hawkins, Brandley and White, 1977; Vondrack, Hostetler, Schulenberg and Shimizu, 1990).

최근까지의 진로결정관련 연구들은 진로결정이 더 이상 진로미결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결정하지 못한 집단 내에서도 각각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Holland and Holland(1977)는 직업미결정 집단을 단순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한 집단과, 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결정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직업미결정과 관련된 성격(personality)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rdon(1998)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진로미결정 집단을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제시하였다. Fuqua, Blum and Hartman(1988)은 진로미결정을 결정력과 불안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확신, 관심, 무관심 그리고 불안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진로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이 진로 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봉환(1977)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요인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진로결정유형을 분류하였다. 김봉환(1977)은 진로결정을 현재 상태 이후의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 설정을 의미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 취업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네 가지 하위유형인 1)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 2)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낮은 집단, 3)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 그리고 4)진로결정수준도 낮고 진로준비행동도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허자영은(1996)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진로결정집단, 확

신이 없는 진로결정집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진로결정집단, 진로에 대해 무관심한 진로결정집단 그리고 불안정한 진로미결정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에 비해 홍혜경(1998)은 진로결정상태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6개 유형을 분류하였다. 박미진 · 최인화 · 이재창(2001)은 진로사고검사, 진로결정척도, 진로결정상황척도 그리고 특성-상태 불안척도를 사용하여 7개의 진로결정유형을 군집화하였다. 이 유형은 진로결정-확신집단, 진로결정-불확신 집단, 진로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미불안 집단, 진로결정-혼란, 진로미결정-역기능 사고 집단으로 나뉜다.

이와 더불어 진로결정유형과 기타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봉환 · 김계현(1995)은 진로결정유형에 개인의 불안수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안권순 · 한건환(2002)은 청년기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불안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을 제시하고 있다. 정윤경(2002)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진로정보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까지 진로결정에 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진로결정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가정, 사회적 변인이 규명되고 있고, 또한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차별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미진 등, 2001; 안권순 등, 2002; 문승태 등, 2002). 또한 과거에 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결정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최진승 등, 1994; 김지혜, 1998; 정윤경, 2002; 박미진 등,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 및 학교의 어떤 진로지도 활동요인들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진로결정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대학에서의 학생생활지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서 주로 성별, 불안감, 통제수준, 자존감과 같은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진로결정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동기와의 관련성은 드물게 연구되고 있다(진로결정과 동기와의 관련성에 관한 예, 김홍규, 1997; Gati, Osipow, Krausz, and Saka, 2000; Gati, Krausz, and Saka, 2001; 황매향 · 임은미, 2004).

동기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행동의 유발과 지속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동기는 진로의 결정여부뿐 아니라 결정유형의 특성, 그리고 향후 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개인변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결정이 대학진학 후 전공과목에의 적성 및 흥미도, 학업의 지속여부, 학업수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대학졸업 후

직업선택과 직업에의 만족도, 직업수행능력, 직업과 관련된 자아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점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지도 관련 개인, 가정 그리고 학교 변인을 비교분석하고, 진로결정수준과 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난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의 생성,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패널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2004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인 수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3학년생을 모집단으로 각 교급별로 2,000명씩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학부모와 담임 그리고 학교행정가가 참여하였다.

데이터에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진로계획, 진로지도, 학업성취, 자아관, 직업의식 등의 학생 조사내용과, 가구상황, 자녀에 대한 관심, 교육열, 진로지도, 인생관 등의 학부모 조사내용, 그리고 일반적 특성, 진로지도, 학교환경평가, 상담실 운영여부와 같은 학교조사내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중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과 그 학부모 및 학교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며(각각 2,000명씩),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인을 설정하였다.

2. 측정변인에 대한 정의

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정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결정수준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봉환(1977)은 진로결정수준이외에 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진로결정유형을 분류하였고, Holland(1997)은 정보와 개인적 심리요인을, 허자영(1996)은 정보, 확신, 관심을, 박미

진 등(2001)은 특성-상태 불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Osipow, Carney, and Barak(1976)은 확신과 미결정성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정도를 측정하였다(Career Decision Scale; CDS).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을 미래의 직업결정과 고교졸업 후 진로결정으로 정의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직업, 진학/취업, 희망전공, 구체적 직업에 대한 결정여부, 정보, 확신, 준비행동 여부와 같은 요인을 설정하였다(표1 참조).

나. 동기에 대한 정의

동기는 타인의 지시나 강요, 처벌, 규칙, 사회적 압력, 사회적 인정, 물질적 보상 등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외적동기와, 요구, 흥미, 호기심, 즐거움, 내면화된 신념 등과 같이 개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내적동기로 나눌 수 있으며(Deci and Ryan, 1985; Heckhausen, 1989), 내재동기는 스스로의 결정, 대상과제에의 지속적 관심 및 몰입, 과제수행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같은 행동의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Meece, Blumenfeld and Hoyle, 1988).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흥미와 내면화 정도, 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결정된 진로의 실현을 위한 행동적 준비정도 또는 향후 결정된 진로의 지속성 등과 같이,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질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측정변인으로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내재 및 외재동기의 경향성에 따른 유형을 설정하였다(표1 참조).

나머지 관련된 개인, 가정, 학교변인의 설정은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지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정 및 학교변인을 설정하였다(표1 참조).

<표 1> 변인에 대한 정의

변인	변인명	정의
진로결정수준 I) (미래직업결정)	진로결정수준 I	수준4: 미래직업 결정, 정보와 확신수준 모두 높음 수준3: 미래직업 결정, 정보와 확신수준 혼재 수준2: 미래직업 결정, 정보와 확신수준 모두 낮음 수준1: 미래직업 미결정
진로결정수준 II-1) ²⁾ (고교졸업 후 진학결정)	진로결정수준 II-1	수준3: 희망전공 결정, 정보수준 높음 수준2: 희망전공 결정, 정보수준 낮음 수준1: 희망전공 미결정
진로결정수준 II-2) ³⁾ (고교졸업 후 취업결정)	진로결정수준 II-2	수준3: 구체적 직업결정, 준비행동 수행 수준2: 구체적 직업결정, 준비행동 미수행 수준1: 구체적 직업 미결정

<표 계속>

1)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

변인	변인명	정의
동기	내재동기	내재적 유형: 관련문항에서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답변만 나타남
	외재동기	외재적 유형: 관련문항에서 외재적 동기와 관련된 답변만 나타남 ⁴⁾
개인변인	성별 학교성적 자아관	성별 전체석차 자신의 적성, 흥미,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결단력, 계획실행 정도에 대한 평가, 자존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가정변인	부/모 성별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성별 연령 부/모 고등학교 졸업여부(중학교 졸업이하를 기준) 부/모 대학교 졸업이상(중학교 졸업이하를 기준)
	소득 대화시간 대화-삶 대화-흥미 대화-선택 직업정보 찾기	지난 1년간 가구의 총 평균소득 자녀와 대화시간 부모와 삶에 대한 대화여부 부모와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여부 부모와 직업, 학교, 학과선택에 대한 대화여부 부모와 직업, 학교, 학과에 관한 정보 찾기 여부
학교변인	교사성별 교사연령 교직경력 교과이수 강연 직업체험 학과 및 학교안내 적성검사 진로상담 특기적성수업 상담실 진로지도	성별 연령 경력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여부 진로관련 강연을 들은 여부 직업을 체험한 여부 학과 및 학교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경험 여부 진로관련 검사를 받은 여부 진로상담을 받은 여부 교과관련 특기적성 수업을 실시하는지 여부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부 존재여부 학교에서 진로지도가 실시되고 있는 정도

- 2) 진학과 취업결정 집단 각각의 내부에서의 진로결정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을 합쳐서 전체집단 고교졸업 후 진로결정에 관한 수준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설계하지 않은 이유는 두 집단에 실시된 조사의 문항이 정보와 준비행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공통기준 설정이 어려움에 근거한다.
- 3) 실업계만 해당된다. 인문계에서는 표집크기가 매우 작아 분석이 불가능 하였다.
- 4) 개인에게 있어서 내재와 외재동기는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또는 부적관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재와 외재동기의 각각의 강도와 이의 상호관련에 따른 유형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이 내재적 동기유형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외재적 동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3. 자료처리

가. 변인에 따른 집단분류: 진로결정수준별 집단분류의 예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변인 진로결정수준 I의 경우)

직업/진로 결정여부, 정보와 확신정도 그리고 준비행동수행을 기준으로 정의한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하여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준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직업 결정여부, 정보수준, 확신정도를 기준으로 한 집단분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문항을 선택하고 점수화 하였다;

기준 1 직업결정여부: 직업을 결정하였는가의 명목적도 문항에서 결정 (1) 로 답한 경우 (조사문항 36)

기준 2 정보수준: 선택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의 서열척도 문항들의 표준화 값의 평균을 상, 하위 50% 기준으로 분류(조사문항 36-2-1, 36-2-2)

기준 3 확신정도: 선택한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가의 명목적도 문항에서 그렇다 (1) 로 답한 경우(조사문항 36-5)

그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의 서열척도 문항의 표준화 값을 상, 하위 50% 기준으로 분류(조사문항 36-6).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4는 문항36의 값이 1이고, 정보수준 점수 표준화점수 평균이 상위 50%에 속하고, 문항36-5의 값이 1이고 확신정도 표준화점수 값이 상위 50%에 속할 경우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1은 문항36의 값이 0으로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분류되었다. 직업을 결정했지만 정보수준과 확신정도가 낮은 수준의 집단 2에는 문항 36의 값이 1이지만, 정보수준점수 표준화 점수 평균이 하위 50%에 속하고, 문항36-5의 값이 0이며, 확신정도 표준화점수 값도 하위 50%에 속할 경우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경우는 혼합집단 3 으로 분류되었다.

진로결정수준 II-1과 II-2 그리고 동기유형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즉 관련문항이 명목적도 값의 경우 그 값이 1 또는 0인가의 여부를, 그리고 서열척도 값의 경우 그 표준화된 (평균)값이 상위, 하위 50%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각각 개념적 정의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변인과 관련된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변인관련 문항 및 척도

변 인	관 련 문 항 및 척 도
진로결정수준 I (미래직업결정)	-직업결정여부 -정보수준 -확신정도 학생문항 36(명목적도, 결정 1, 미결정 0) 학생문항 36-2-1과 36-2-2 (서열척도, 표준화된 평균값의 상/하위 50%) 학생문항 36-5(명목적도, 확신 1, 미확신 0) 학생문항 36-6(서열척도, 표준화된 값의 상/하위 50%)
진로결정수준 II-1 (고교졸업 후 진학결정)	-진학결정여부 -희망전공 결정여부 -정보수준 학생문항 39(명목적도, 진학결정 1) 학생문항 40-3(명목적도, 결정 1, 미결정 0) 학생문항 40-4-1, 40-4-2, 40-4-3(서열척도, 표준화된 평균값의 상/하위 50%)
진로결정수준 II-2 (고교졸업 후 취업결정)	-취업결정여부 -구체적 직업 결정여부 -준비행동여부 학생문항 39(명목적도, 취업결정 1) 학생문항 41-2(명목적도, 결정 1, 미결정 0) 학생문항 41-3, 41-4, 41-5 (명목적도, 결정 1, 미결정 0)
동기유형	-직업선택이유 -내 재 동 기 -외 재 동 기 학생문항 54-1, 54-2(명목적도, 내재동기 1, 외재동기 0) 학생문항 54-1, 54-2 (명목적도, 둘 다 내재면 내재동기 1, 나머지는 0) 학생문항 54-1, 54-2 (명목적도, 둘 다 외재면 외재동기 1, 나머지는 0)
학생성별	남자 1, 여자 0
학교성적	백분율로 표시된 석차, 교사문항 13-12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음)
자아관	학생문항 52-1, 52-2, 52-3, 52-4, 52-5, 52-6(서열척도) (각각 표준화한 점수의 합계의 평균값,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관)
부모성별	남자 1, 여자 0
부모연령	연속변수
부모교육수준 고졸	고졸 1, 중졸 0
부모교육수준 대졸이상	대졸이상 1, 중졸 0
소득	부모문항 75, 연속변수
자녀와 대화시간	부모문항 9, 연속변수
대화-삶	학생문항 45-1, 경험 1, 무경험 0
대화-흥미	학생문항 45-2, 경험 1, 무경험 0
대화-선택	학생문항 45-3, 경험 1, 무경험 0
직업정보 찾기	학생문항 45-4, 경험 1, 무경험 0
교사성별	1 남자, 0 여자
교사연령	연속변수
교직경력	연속변수
교과이수	학생문항 44-1, 경험 1, 무경험 0
강연	학생문항 44-2, 경험 1, 무경험 0
학과 및 학교안내	학생문항 44-3, 경험 1, 무경험 0
적성검사	학생문항 44-4, 경험 1, 무경험 0
직업체험	학생문항 44-5, 경험 1, 무경험 0
진로상담	학생문항 44-6, 경험 1, 무경험 0
특기적성	교무문항 5, 실시 1, 실시안함 0
상담실	교무문항 13, 있다 1, 없다 0
진로지도	교사문항 2(서열척도,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

나.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된 집단들(집단 1, 2, 3, 4) 비록 순차적인 서열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 집단간의 진로결정수준의 질적인 차이가 실제로 1만큼 차이가 난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집단 3의 경우 미래직업을 결정하였으나 그 정보수준과 확신정도에 있어서 높고 낮은 수준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3의 진로결정수준이 두 요인이 모두 낮은 집단 2보다는 높고, 두 요인 모두 높은 집단 4보다는 낮은 것은 타당하나, 각 집단의 차이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열화 된 항목의 정보를 이용한 회귀분석 시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서 Ordered-Probit 방법을 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먼저 미래의 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나뉘어 진 각 집단간의 변인별 특성의 차이를 단순 평균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아래의 <표 3>과 같다. 단순 평균비교는 변인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각 변인 값의 차이와 그 변화의 경향성을 탐색하여 각 집단의 현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개인변인으로서의 성별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1이(60.7%) 다른 세 집단보다(집단2 52.9%, 집단3 54.4%, 집단4 53.4%) 남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성적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자아관 역시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0.328, -0.119, 0.083, 0.517), 특히 집단 4의 자아관 평균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집단 4에서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준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외적동기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집단 4에서 1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준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집단간 변인특성(평균비교)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⁵⁾
학생성별	0.607	0.529	0.544	0.534
학생성적 ⁶⁾	51.743	49.649	46.157	45.693
학생 자아관	-0.328	-0.119	0.083	0.517
내적동기유형	0.179	0.357	0.145	0.422
외적동기유형	0.177	0.109	0.150	0.100
아버지 연령	47.476	47.739	47.692	47.847
아버지 고졸	0.461	0.443	0.460	0.414
아버지 대졸이상	0.393	0.403	0.386	0.446
어머니 연령	44.564	44.662	44.432	44.382
어머니 고졸	0.576	0.570	0.565	0.546
어머니 대졸이상	0.192	0.231	0.203	0.265
소득	310.525	334.881	319.394	348.740
자녀와 대화시간	2.256	2.298	2.416	2.536
삶에 관해 대화	0.732	0.796	0.793	0.859
흥미에 관해 대화	0.768	0.801	0.887	0.900
같이 정보 찾기	0.609	0.633	0.746	0.851
선택에 관해 대화	0.855	0.937	0.919	0.952
교사성별	0.770	0.760	0.777	0.811
교사연령	40.927	40.856	40.502	40.951
교직경력	14.734	15.069	14.488	14.785
교과이수	0.433	0.448	0.471	0.550
강연	0.300	0.389	0.380	0.530
직업체험	0.050	0.054	0.063	0.104
진로지도	3.479	3.457	3.532	3.458
상담실	0.910	0.941	0.923	0.912
학교 및 학과 안내	0.442	0.484	0.504	0.590
검사	0.819	0.878	0.845	0.811
특기적성수업	0.962	0.932	0.958	0.908
진로상담	0.485	0.552	0.562	0.606
N ⁷⁾	557	221	973	249

가정변인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집단 4에 속하는 학생의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학교 졸업이상자인 경우가 아버지 41.4%, 어머니 26.5%로써 다른 집단에 비해(아버지 38.6%~40.3%, 어머니 19.2%~23.1%)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2.2시간~2.5시간), 그 밖에 자녀의 삶, 흥미, 직업선택에 관하여 대화하는지 여부와 자녀와 같이 정보를 찾는지 여부는 모두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특히 흥미에 관한 대화와(0.76~0.9) 같이

5)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 분류이며 집단번호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

6) 학생성적은 값이 클수록 성취수준이 낮다.

7) 각 수준별 표집의 크기는 변인에 따라 다소 다른데 이는 특정한 변인에 관한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집단1에서는 성적(411명), 아버지 연령(495명) 변인의 경우가, 그리고 집단2, 3, 4에서는 성적(174명, 704명, 194명) 변인의 경우가 가장 낮은 사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의 경우 거의 유사한 크기를 나타낸다.

정보 찾기는(0.85~0.95)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도 나타내고 있다. 흥미에 관한 대화와 함께 정보 찾기(적극적 참여행동 장려)는 학생의 내적동기를 유발시키는 조건이다. 따라서 앞서 내적동기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집단 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학교변인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4의 남자 담임교사 비율이(81.1%) 다른 세 집단에(76%~77%) 비해 더 높다. 그러나 교사의 연령이나 교직경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경험해 본 활동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의 이수 경험(43.3%~55%), 직업체험(5%~6.3%), 학교 및 학과에 관해 안내를 받은 경험(44.2%~59%), 상담경험(48.5%~60.6%), 강연경험(30%~53%)이 각각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학교 요인들에서는(적성흥미검사, 진로상담, 교과목 관련 특기적성수업)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업계의 경우 <표 4>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집단분류가 인문계와 달리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실업계도 인문계화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수준을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집단 2에 속하는 사례수가 전체 2000명 중 35명에 지나지 않아 집단간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이에 집단 2와 집단 3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세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2를 집단 1이 아닌 집단 3에 포함시킨 이유는, 정보와 확신수준은 낮으나 직업을 결정한 집단 2가 직업을 아예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집단 1보다는 정보와 확신수준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업을 결정한 집단 3에 더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업계에서 인문계에 비해 집단 2가 월등히 적게 나타난 것은 정보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냥 직업을 선택한 학생이 줄어든 대신,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과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학생이 모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 각 집단 별 변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변인에 있어서는 인문계와 달리 학생의 성별, 성적이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나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아관은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결정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0.031, 0.018, 0.022). 그러나 실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관 점수도(0.022) 인문계에(0.517) 비하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유형은 인문계와 반대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비율이 적어지며(22.8%~18.4%), 외적동기유형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8.9%~12.2%). 또한 내적동기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비율도 실업계에서는 집단 1에서 22.8%가 나타났는데 이는 인문계의 42.2%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동기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각 집단에서의 차이에 대한 Ordered Probit 검증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표 4>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집단간 변인특성(평균비교)

	집단 1	집단 2	집단 3 ⁸⁾
학생성별	0.591	0.493	0.569
학생성적	47.323	48.741	47.347
학생 자아관	-0.031	0.018	0.022
내적동기유형	0.228	0.227	0.184
외적동기유형	0.089	0.112	0.122
아버지 연령	47.532	47.693	47.672
아버지 고졸	0.419	0.390	0.393
아버지 대졸이상	0.257	0.269	0.235
어머니 연령	44.083	44.184	44.205
어머니 고졸	0.395	0.395	0.391
어머니 대졸이상 소득	0.151	0.182	0.156
	217.921	223.808	216.801
자녀와 대화시간	2.398	2.479	2.377
삶에 관해 대화	0.724	0.726	0.729
흥미에 관해 대화	0.730	0.737	0.725
같이 정보 찾기	0.591	0.548	0.582
선택에 관해 대화	0.796	0.781	0.813
교사성별	0.667	0.703	0.640
교사연령	41.708	41.252	39.644
교직경력	12.885	11.273	11.135
교과이수	0.286	0.402	0.365
강연	0.383	0.430	0.385
직업체험	0.167	0.165	0.145
진로지도	3.580	3.473	3.564
상담실	0.928	0.935	0.891
학교 및 학과 안내	0.479	0.474	0.505
검사	0.673	0.770	0.691
특기적성수업	0.726	0.905	0.855
진로상담	0.465	0.538	0.475
N	789	661	550

가정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은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어머니의 연령이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44.08세~44.2세). 또한 부모와의 대화시간 역시 일정한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단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 부모와 대화를 하는 비율이 진로결정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72.4%~72.9%).

학교변인의 경우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41.7세~39.6세), 그리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12.8년~11.1년)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학생들의 미래직업의 결정수

8) 집단 1: 미래직업미결정, 집단 2: 낮은 정보와 확신수준의 직업결정 + 혼재된 수준의 직업결정, 집단 3: 높은 정보와 확신수준의 직업결정

준이 높은 반일수록 더 젊고 경력이 적은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인의 이러한 감소의 경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차후 검증되어야 한다. 이 밖에 인문계와 비교해서 흥미로운 것은, 실업계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업체험의 비율이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실업계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직업체험을 한 학생이 14.5%인데, 결정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16.7%로 오히려 더 많다. 그러나 직업을 체험한 비율 자체는 실업계의 경우 가장 높은 직업체험의 비율이 16.7%로 나타나, 인문계의 경우(6.3%)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보다 직업을 체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지만, 체험학생들은 실제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더 많이 속해있다. 만약 차후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실업계 학생들의 직업체험이 실제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직업체험의 내용 및 구조 그리고 체험학생의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학교관련 변인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수준과 개인, 가정, 학교변인의 관계에 대한 Ordered Probit 결과 및 해석

가.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학교 변인(인문계와 실업계)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

<표 5>는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Ordered Probit 결과를 인문계와 실업계 집단으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개인변인들을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관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내재적 동기유형일수록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즉 높은 수준의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계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개인변인 중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유일한 변인이 동기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문계와는 달리 외재적 동기유형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내재적 동기유형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생들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고교졸업 후 취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스스로 실업계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업계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졸업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문제나 구체적인 직업결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일단 고교를 졸업 후 인문계 학생들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를 일차적 목표로 갖고 있다. 물론 이들 중 뒤늦게 뚜렷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대학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뚜렷한 희망전공이나 미래직업에 대한 계획이 없이 대학진학에 대한 선망과 대학졸업이 실업계 고교졸업 보다는 더 나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에서 진학이 아니라 미래직업결정이라는 기준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분류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학업성취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에 비추어 미래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면 '빨리 졸업하여 000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다'와 같이- 높은 진로결정수준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외재적 동기유형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현실적인 조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높은 수준의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높은 진로결정수준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흥미, 적성, 꿈, 자존감 등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유형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실업계에서 내재적 동기유형이 대학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이는 위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대학진학결정에 관한 결과를 다룰 때 언급하기로 한다.

가정변인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졸업이상 일수록,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같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흥미에 관하여 대화를 한다고 대답한 인문계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계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이 오직 자녀와의 대화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다(신재순, 1998, 김홍규, 1997, 이은희, 2003). 따라서 실업계 고교생의 가정환경은 가족의 물질적, 정서적 지지 및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변인이 인문계에 비해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가정변인 중에서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변인의 경우 인문계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에 대한 이수경험과 직업선택에 관한 선배나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서 진로지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변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학교의 역할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강연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진로결

정에 대한 그 어떤 이론수업이나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직업선택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적성 검사실시와 같은 활동보다도, 강연이라는 모델링 효과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직업세계와 직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키워주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더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단순평균비교에서는 학생의 직업체험여부가 인문계와 실업계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rdered Probit 결과 직업체험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과 개인, 가정, 학교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Ordered Probit결과(인문계와 실업계)

** p<0.05 * p<0.1

	진로결정수준-미래직업기준(인문계)		진로결정수준-미래직업기준(실업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학생성별	-0.160	0.073**	0.025	0.075
학생성적	-0.002	0.001**	0.0005	0.001
자아관	0.601	0.053**	-0.009	0.053
외재적 동기유형	-0.002	0.095	0.274	0.108**
내재적 동기유형	0.220	0.074**	-0.235	0.086**
아버지 연령	0.032	0.013**	0.006	0.012
어머니 연령	-0.026	0.014*	0.007	0.013
아버지 고졸	-0.074	0.109	0.031	0.088
어머니 고졸	0.039	0.093	-0.087	0.088
아버지 대졸이상	-0.157	0.128	0.047	0.152
어머니 대졸이상	0.240	0.138*	-0.194	0.204
소득	-0.0002	0.0002	0.0001	0.0002
자녀와 대화시간	0.068	0.036*	0.062	0.035*
삶에 관해 대화	0.016	0.083	0.036	0.085
흥미에 관해 대화	0.209	0.105**	-0.143	0.092
같이 정보 찾기	0.193	0.076**	-0.073	0.077
선택에 관해 대화	0.090	0.126	0.140	0.095
교사성별	0.101	0.088	0.182	0.083**
교사연령	0.015	0.014	-0.021	0.007**
교직경력	-0.014	0.013	0.009	0.006
이수과목	0.146	0.065**	-0.125	0.075*
강연	0.193	0.069**	0.134	0.073*
직업체험	0.178	0.139	-0.058	0.099
진로지도	-0.005	0.037	0.123	0.047**
상담실	-0.006	0.155	-0.213	0.134
학교 및 학과안내	0.026	0.067	0.013	0.072
적성검사	-0.187	0.090**	-0.030	0.081
특기적성수업	-0.493	0.140**	-0.086	0.093
진로상담	0.037	0.067	0.001	0.072
cut1	0.0001	0.699	0.027	0.559
cut2	0.383	0.699	0.932	0.559*
cut3 ⁹⁾	2.02	0.700**		
Log-Likelihood	-1,412.751		-1,222.7825	
N	1,277		1,147	

나.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학교변인(인문계와 실업계)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

아래 제시되어 있는 <표 6>은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Ordered Probit결과를 인문계와 실업계 집단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 6> 고교졸업 후 진학결정 및 취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과 개인, 가정, 학교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Ordered Probit결과(인문계와 실업계)

** p<0.05 * p<0.1

	진로결정수준-진학기준 (인문계)		진로결정수준-진학기준 (실업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학생성별	-0.036	0.077	-0.020	0.087
학생성적	-0.003	0.001**	0.0005	0.001
자아관	0.595	0.056**	0.066	0.061
외재적 동기유형	-0.086	0.101	0.100	0.130
내재적 동기유형	0.141	0.080*	0.200	0.099**
아버지 연령	0.003	0.014	-0.034	0.014**
어머니 연령	-0.007	0.015	0.014	0.016
아버지 고졸	0.094	0.115	-0.110	0.105
어머니 고졸	0.069	0.098	0.163	0.104
아버지대졸이상	0.009	0.134	-0.135	0.178
어머니 대졸이상	0.179	0.146	0.300	0.235
소득	0.0001	0.0002	-0.0003	0.0003
자녀와 대화시간	0.089	0.039**	-0.057	0.041
삶에 관해 대화	-0.016	0.088	-0.043	0.098
흥미에 관해 대화	0.072	0.111	-0.085	0.107
같이 정보 찾기	0.317	0.079**	-0.039	0.088
선택에 관해 대화	0.052	0.134	0.0009	0.110
교사성별	0.077	0.093	0.042	0.096
교사연령	-0.002	0.015	-0.006	0.008
교직경력	0.0004	0.014	0.015	0.007**
이수과목	0.045	0.069	0.121	0.087
강연	0.342	0.074**	-0.180	0.085**
직업체험	-0.077	0.155	-0.056	0.112
진로지도	-0.044	0.040	-0.047	0.055
상담실	-0.057	0.167	0.034	0.165
학교 및 학과안내	0.072	0.071	-0.019	0.084
적성검사	-0.139	0.097	0.042	0.095
특기적성수업	-0.343	0.152**	-0.102	0.111
진로상담	-0.046	0.071	-0.060	0.083
cut1	-1.128	0.740	-2.110	0.670**
cut2	0.047	0.739	-1.107	0.668*
Log-Likelihood	-1,134.03		-902.88429	
N	1,222		841	

9) 실업계의 경우 결정수준별 분류된 집단이 3개이므로 CUT3의 값이 존재하지 않음

먼저 개인변인들을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관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내재적 동기유형일수록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즉 높은 수준의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계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개인변인 중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유일한 변인이 내적동기유형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내재적 동기유형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미래직업결정에서 동기유형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내재적 동기유형은 높은 수준의 정보와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인문계의 경우에는 미래직업을 결정하거나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재적 동기유형이 높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실업계의 경우에는 대학진학을 결정한 집단에서만 이러한 관계가 확인되고, 미래직업을 결정하는 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내재적 동기유형이 부적 영향을 주고 오히려 외재적 동기유형이 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실업계에서는 외재적 동기의 경향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직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반면 내재적 동기의 경향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계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있는 <표 7>에서와 같이 진학과 취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개인변인임이 나타났다.

여학생일수록, 자아관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외재적인 동기가 강할수록 취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실업계 학교에서의 미래직업결정과 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과 내재적 동기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와 그 해석의 관점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학교변인에서는 교과관련 특기적성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학교의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처리와 같은 수업이 교과관련 특기적성수업에 포함되며 이러한 수업은 취업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진로결정을 단순히 결정과 미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하여 여러 가지 진로결정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직업결정 또는 진학결정), 결정의 주체가 어떠한 특성의 집단에 속해 있는지, 즉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가정 및 학교의 교육환경에 속해 있는지 하는 요인들이 진로결정수준의 질적 특성, 즉 여러 가지 진로결정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결정유형에 대한 분석은 보다 차별화된 진로지도의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표 7> 실업계에서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관한 로짓 추정결과 ** p<0.05 * p<0.1

	취업=1, 진학=0		
	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학생성별	0.255	0.135	*
학생성적	-0.002	0.002	
자아관	-0.177	0.100	*
외재적 동기유형	0.387	0.199	*
내재적 동기유형	-0.004	0.158	
아버지 대졸이상 어머니	0.008	0.154	
대졸이상	-0.011	0.188	
소득	0.00003	0.0004	
자녀와 대화시간	-0.088	0.066	
삶에 관해 대화	0.171	0.164	
흥미에 관해 대화	-0.072	0.170	
같이 정보 찾기	0.049	0.142	
선택에 관해 대화	0.067	0.179	
이수과목	-0.034	0.141	
강연	-0.017	0.140	
직업체험	-0.296	0.190	
진로지도	-0.111	0.089	
상담실	-0.138	0.231	
학교 및 학과안내	-0.123	0.137	
적성검사	-0.199	0.149	
특기적성수업	-0.303	0.159	*
진로상담	0.190	0.137	
cons	-0.244	0.480	
Log-Likelihood	-748.07964		
N	1,368		

다음으로 대학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과 가정변인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같이 정보를 찾는다고 대답한 인문계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미래직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인문계 결과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의 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미래직업이 대학진학 및 전공 선택 보다 협의의 영역이므로 직접적인 관련변인 역시 축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실제 정보를 찾아보는 등의 준비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실업계에서는 아버지 연령을 제외하고는 측정된 모든 가정변인이 대학진학결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적을수록 대학진학을 기준으로 한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변인의 경우 인문계에서는 진로선택에 관한 선배나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대학진학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과목 관련 특기적성수업의 실시여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과목 관련 특기적성수업이 실제 학교에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실시되

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면 이러한 수업이 인문계에서는 진학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과목 관련 특기적성수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실업계에서는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문계와 반대로 강연의 경험이 진학기준의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계 학교에서 주로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대학진학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아서 진학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끝으로, 미래직업과 대학진학, 그리고 인문계와 실업계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진로결정의 대상과 결정주체를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 가정 그리고 학교변인

	미래직업결정	대학진학 및 전공결정
인문계	학생성별, 학생성적, 자아관, 내적동기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어머니 대졸이상 학력 자녀와 대화시간 부모와 흥미에 관해 대화 부모와 같이 정보 찾기 진로와 직업과목 이수경험 진로관련 강연경험 적성검사(-영향) 교과관련 특기적성수업(-영향)	학생성적, 자아관, 내적동기 자녀와 대화시간 부모와 같이 정보 찾기 진로관련 강연경험 교과관련 특기적성수업(-영향)
실업계	내적동기 (-영향), 외적동기 자녀와 대화시간 교사성별, 교사연령(-영향) 진로와 직업과목 이수경험 진로관련 강연경험(-영향) 학교진로지도	내적동기 아버지 연령(-영향) 교직경력 진로관련 강연경험(-영향)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미래직업과 대학진학의 여부, 그리고 인문계와 실업계 여부에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확인되는 변인은 개인의 내적동기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관련 강연경험임이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수준과 그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서의 동기가 갖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 중 현실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선배나 전문가의 강연이 관련 교과과목을 배우거나 검사를 받는 활동보다 더 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 계열과 결정대상에 따라 확인된 변인이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진로관련 활동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집단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

라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및 교육현장에서의 진로지도활동은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보다 차별화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고교졸업 후 취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학교변인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실업계)

인문계의 경우 취업을 결정한 집단의 사례수가 31명에 지나지 않아 여기서는 실업계의 경우만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을 기준으로 한 실업계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고교졸업 후 취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과 개인, 가정, 학교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Ordered Probit결과(실업계)

** p<0.05 * p<0.1

	진로결정수준-취업기준(실업계) ¹⁰⁾	
	계수	표준오차
학생성별	-0.152	0.153
학생성적	0.0003	0.003
자아관	0.031	0.115
외재적 동기유형	0.055	0.206
내재적 동기유형	0.090	0.190
아버지 연령	-0.019	0.023
어머니 연령	0.008	0.026
아버지 고졸	-0.296	0.177*
어머니 고졸	-0.056	0.181
아버지대졸이상	0.005	0.330
어머니 대졸이상	-0.041	0.447
소득	0.0002	0.0005
자녀와 대화시간	-0.028	0.074
삶에 관해 대화	-0.197	0.189
흥미에 관해 대화	0.032	0.200
같이 정보 찾기	0.255	0.162
선택에 관해 대화	-0.138	0.207
교사성별	0.233	0.171
교사연령	-0.007	0.015
교직경력	0.006	0.013
이수과목	0.280	0.164*
강연	-0.128	0.153
직업체험	0.078	0.227
진로지도	-0.062	0.100
상담실	-0.502	0.269*
학교 및 학과안내	0.039	0.154
적성검사	-0.350	0.173**
특기적성수업	0.018	0.181
진로상담	-0.178	0.149
cut1	-2.975	1.125**
cut2	-1.803	1.119
Log-Likelihood	-284.19018	
N	296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수를 경험할수록, 상담실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일수록 그리고 적성검사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취업선택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직업과 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진로와 직업과목은 실업계의 취업반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결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아버지의 저학력과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변하는 진로상담실의 부재와 같은 요인들이 강할수록 취업결정을 기준으로 한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 처해있는 실업계 학생들일수록 대학진학과 취업간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확고하게 취업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게 강한 외재적 동기유형의 경향성이 기대되었으나 그 어떤 동기유형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적 조건에서 취업선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어떤 동기도 뚜렷이 가지고 있지 못한 동기미형성의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동기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의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진로의 결정여부만으로는 더 이상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이다.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율적인 확신과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인 준비활동을 거쳐서 최종선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개인이 지닌 동기에 관한 분석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떻게’의 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배경변인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 중 과연 어떤 활동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 역시 진로지도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진로지도의 차별적 실시를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과제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로지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의의를

10) 인문계의 경우 고교졸업 후 진로로서 취업을 선택한 집단이 31명에 지나지 않아 분석 불가능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의 방향과 내용에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동기유형의 경향성이 강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난 만큼, 진로지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적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진로지도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과약을 꼽는다. 즉 자신이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자발적인 진로선택을 유도하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내적동기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진로지도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적성 및 흥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적성검사의 경험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가 이미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은 경험이 현재의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적성검사의 결과와 미래직업 및 전공결정간의 연관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흔히 적성검사 결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영역이 몇 가지로 분류되면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수의 전공이나 직업이 추천된다.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지도되지 않고 있으며, 일선교사의 경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적동기의 강화라는 목표를 염두에 둔 진로지도 활동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내적동기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 한다면, 본격적인 진로지도 활동은 검사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이후단계부터 시작된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성과 흥미의 영역을 구체화, 현실화 하고 그 속에서 자신감과 자발성을 키워줄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야말로 내적동기 강화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학교의 진로지도에는 이 과정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내적동기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볼 때, 선배나 전문가의 강연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신의 현실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모호한 검사결과보다는, 생생한 체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내면화시키고,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진로선택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내적동기강화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는 진학과 직업현장에서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자신의 진로탐색과정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선배의 강연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연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학생들에게는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계 학교에서 수행되는 진로지도 활동으로서의 강연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지도에서 내적동기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실업계 학교

본래의 교육목표에 합당한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아관이 낮고 외적동기가 강한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취업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지속성과 발전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저하된 인력수준을 가져온다. 이에 일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목적과 역할에 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진로선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높은 대학진학 희망률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대상 집단에서 실업계 학생 2000명 중 1378명이 대학진학, 470명이 취업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학교로서 존재하는 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당장 졸업 후 시작해야 하는 취업생활이야말로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내적동기의 강화와 현실적인 준비행동에 대한 계획이 맞물린 진로지도는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이 반드시 나오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실업계 선택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동기와 준비 없이 막연히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다수 실업계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이들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계 학교에서의 내적동기 강화를 위한 진로지도는 인문계 학교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로는 실업계 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의 가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문계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실업계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력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실업계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보 찾기와 같은 실질적 도움이나 잦은 대화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잘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활동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진로지도활동이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진로지도에서보다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실업계 학교에 전문적인 진로지도활동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진로지도 전담 상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업계 학교 진로지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주는 가정변인으로서 부모와의 대화와 더불어 부모와 같이 정보 찾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자녀 스스로 이를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것 역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무엇이 되고 싶거나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은 있지만, 실제 이를 위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경험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준비행동에의 추진력이나 참여활동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부모는 직업이나 전공의 종류, 특성, 요구하는 능력, 현실에의 응용분야, 장래성, 자녀의 적성과 흥미 또는 기타 개인적 특성과 부합하는 정도 등에 관

해서 자녀와 같이 정보를 찾아보고 최선의 길을 탐색해 봄으로써 자녀에게 진로결정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다양한 기회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이와 같은 진로지도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홍보해야 하며, 실업계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러한 탐색의 과정이 수행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봉환(197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지혜(1998).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141-160.
- 김홍규(199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4(2), 49-60.
- 박미진·최인화·이재창(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신재순(1998).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안권순·한건환(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준비 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이은희(2003).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육의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 연구, 5(2), 147-17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진승·손종식(1994). 상업고등학생의 자기규제학습수준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2(2), 5-38.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경(1997).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to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Deci, E. L., and Ryan, R. M.(1980). The empirical exploration of intrinsic motivational

- processe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3, 99. 39-80). New York: Academic Press
- Fuqua, D. R., Blum, C. R., and Hartman, B. W.(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Gati, I., Ostipow, S. H., Krausz, M., and Saka, N.(2000).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y Questionnaire: Counselors' versus areer counselors'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99-113.
- Gati, I., and Saka, N.(2001). High school students' career-relate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3), 331-340.
- Gordon, V. N.(1998). Career Decidedness type: A literature re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4), 386-403.
- Hawkins, J. G., Brandley, R. W., and White, G. W.(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gy*, 5, 398-403.
- Heckhausen, H.(1989). *Motivation und Handeln*. Auflage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 Holland, J. L., and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Taylor, K. M., and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Meece, J. L., Blumenfeld, P. C., and Hoyle, R. H.(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Osipow, S. H., Carney, C. G., and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23-324.
- Vondrac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and Shimizu, K.(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8-106.
- Walsh, W. B., and Osipow, S. H. (Eds.)(1988). *Career decision mak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